월간 충현

감사와 결실의 달

11·12

1984

■ 권두언 ■

성숙한 감사를 보았다

미숙한 감사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마치 어린아이의 변덕과 같아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느낄 때만 감사한다. 사업에 성공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수확이 풍성하고, 명예나 권세를 얻었을 때 감사한다. 물론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보다야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데 미숙한 감사는 소원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고 가진 것을 잃고 비방이나 오해를 받게 되면 쉽게 원망을 한다.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좋아졌다고 감사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나빠지면 자연 원망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어린아이의 미숙한 감사생활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감사가 있다. 어린애가 자라면 부모가 무엇을 사다 주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고마워 오히려 부모님께 무엇을 사다 드리면서 감사한다.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매를 맞으면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으나 성숙한 사람이 되고 보니 그 모두가 사랑임을 깨닫고 매를 드셨던 부모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이다.

메튜 헨리는 하루 저녁에 도적을 몽땅 맞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막혀 주저앉아 통곡할 형편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다 같은 죄인인데 도적놈이 안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도적 맞을 수 있는 물건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것은 도적 맞았으나 믿음은 도적 맞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경성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도적맞듯 예수님을 맞으면 안될 것이므로 믿음 준비하라고 영혼을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당원의 손에 잃고, 장례를 지내는 발인예배 석상에서 인사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주께로 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막중하기에 열가지 감사의 조건을 들어 답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 손양원 목사님의 심정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어찌 우리에게 열가지 뿐이겠는가!

충현교회는 지난 4월 새성전으로 이사오면서 본당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1층 임시예배처에 들어 가면서도 감사를 드렸다. 9월에 성전건축 공사비 지불이 어려워 비상기도회를 가져야 하는 위급한 때에도 '누가 이렇게 크게 지으랬나? 사람 죽이네' 하며 원망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마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쁨으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 위기를 감사로 극복했다. 그리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없고, 없고, 없을찌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했던 성숙한 감사를 이곳에서도 보았다.

[17]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18]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 3 : 17-19)

이성근 목사(주갈)

1984/11·12월호차례

2 권두언 / 이성근
성숙한 감사를 보았다

4 이달의 말씀 / 김창인
심방하는 자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6 특집 I / 신성종
해방신학

11 특집 II / 김차생
자유주의 신학과
W.C.C.에큐메니칼 운동

10 기도문 / 송환장
부끄러움 없는 일꾼 삼아주소서

16 찬송가 해설과 감상 / 조인원
환난과 핍박 중에도

17 충현칼럼 / 김차생
우리의 신앙노선

18 85년도 연간사업계획

20 인도에서 온 편지

21 단상 / 임정희
한 해의 매듭을

22 선교사 선교지소식

25 85 각위원회 임원명단

28 교회소식

32 이달의 교우동정

34 이달의 행사·편집후기

1972년 4 월30일 창간 제12권 제 8 호 통권124호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敎

民族福音化

世界宣敎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심방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8 - 17

목회의 사명을 받은 당회장이나 당회장으로부터 심방을 위임받은 권찰이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무슨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심방입니다. 그러므로 심방하는 직분은 땅 위에서 비길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방의 사명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권찰님들은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면 심방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심방하는 자는 생수를 나누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심방을 하는 자는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심방을 하는 자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만세 반석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나누어 마시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목이 타서 안타까와 할 때에 주의 종이 심방 오셔서 그의 입을 통하여 생수가 쏟아지므로 식구들이 찬미를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심방하는 자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심방을 가면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 달음질 치자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먹일 사명이 있읍니다.

3. 심방하는 자는 위로를 해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사업에 실패하신 분도 있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가정도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소개하면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10여년간 억울함을 당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이 되는 것 같았으나 때가 되니 복을 받았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중간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졌읍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므로 억울해도 조금 참고, 괴로워도 참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여 슬픔과 답답한 일을 당하여 울고 한숨 쉬는 성도들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읍니다.

4. 심방하는 자는 교인에게 십자가 정병의 각오를 갖게 해야 합니다

교인의 가정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까닭없이 믿는 친구를 괴롭히는 자들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는 신자를 찾아가서 "여보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을 때에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는 가시관에 찢겨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워서 천당에 가려고 하겠소? 괴로움도 각오해야 합니다"하며 핍박 당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마음이 생기도록 일으켜 놓아야 합니다.

5. 심방하는 자는 교인으로 게으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심방을 다녀보면 게으른 교인이 있읍니다. 성경을 보라고 해도 안보고 주일 아침예배에 늦도록 잠이나 자고, 기도를 하래도 잡담이나 하며 세월만 보냅니다. 간판은 신자인데 믿는지 안믿는지 모를 사람도 있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당신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꺼요 예수님이 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롬 1 : 11)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시기 전에 일어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해요'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깨닫게 하여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일깨워야 합니다.

6. 심방하는 자는 교인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심방을 다니다 보면 유혹을 받은 신자가 있읍니다. '아니 21세기가 가까와 오는데 2,000년 전의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야말로 구식이니까 신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거나 성경은 덮어두고 묵시를 새로이 받아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교인들이 말을 곧이 듣고 '내가 지금까지 30년 예수믿은 것이 헛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바로 믿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읍니다. '내가 이번에 은혜를 충분히 받고 보니까 우리 목사는 나 만큼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럴 턱이 없지' 이럽니다.

유혹을 받은 자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멸망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제일 잘났다고 뽐내고 교역자가 권면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심방을 하다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인도 만납니다. 그때에 '놀긴 잘논다. 꼬라지를 보니 한심하다' 이러고 핀잔을 주고 오면 안되고 깨닫도록 잘 타일러야 합니다. 유혹을 받은 자를 멸시하지 말고 그에게 심방을 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겸손해지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심방입니다.

7. 심방하는 자는 교인이 봉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지나친 안일주의와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있읍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백만원이 이백만원이 되고… 곱에서 곱으로 이윤이 늘어나 사업을 잘하는 신자 가운데는 욕심이 생겨 악을 채우는 것으로 즐거움을 가집니다. 무슨말입니까? 제 돈이 9,900만원이니까 1억을 채울 때까지는 옷도 안해 입고, 맛있는 음식도 안먹고, 헌금도 안합니다. '헌금은 다음에 하지' 이것이 악을 채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1억을 채우게 되면 다음에는 '2억원을 채워야지, 2억을 채울 때까지는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해' 2억이 차면 그 다음에는 7억을 채울 때까지 못합니다. 이런사람은 평생 먹을 것도 못먹고 입을 것도 못입고 헌금도 한번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벌어 놓은 돈 때문에 형제끼리 법정에 소송을 하여 싸웁니다. 벌어놓은 돈 때문에 아들이 첩을 열둘을 얻게 되고 흥청망청 쓰다보니 가정이 파괴되고 맙니다. 교인 가운데는 돈을 모으는 재미에 십일조도 한번 못 바치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불쌍하기 그지 없읍니다.

이런 교인에게 심방을 가서 '인생의 생명은 풀끝이 이슬이니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찌 되겠는가? 인생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10억의 돈이 있어도 어느 아침에 없어질런지 모르나니 수중에 있을 때에 기회 놓치지 말고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운 자의 영혼을 깨우쳐 주는 것이 심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심방하는 자는 생수와 생명떡을 나누어 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을 위로해야 합니다. 심방하는 자는 교인에게 십자가의 정병으로 각오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도록 독려하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심방하는 자는 교인이 봉사하도록 인도해야할 책임이 있읍니다.

특집①

해 방 신 학

신 성 종
(목사 ·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

다음 글은 지난 11월 5일 실시한
본교회 대학부 주최
제 1 회 대학생 학술강좌
「기독교와 이데올로기」
주제 가운데 신성종박사가 강의한
「해방신학」의 발제 내용이다.
신성종박사는 강의에서
「교회가 타계주의적이고
경건주의 위주로 나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 십양중심으로 나가면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편집자주)

성경 누가복음 4 : 17~19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해방신학이란

이번 「해방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학술강좌를 통해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 가운데 보다더 우리의 사회적인 관심과 책임을 갖는 기회가 되어서 대학부 출신가운데 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앞서 몇가지 책을 소개하겠읍니다.

해방신학에 대해 가장 잘된 책을 꼽으라면 앤드류 커크(Andrew Kirk)가 쓴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이란 책을 들 수 있읍니다. 이 책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썼으면서도 매우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쓰여진 책입니다. 또 하나는 금서(禁書)로 된 책인데 이는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구띠에레즈(Gutierrez)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밖에 지난 9월 23일자 주간조선 812호에 게재된 것으로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것을 번역한 「교황청의 해방신학 비판교서」가 있읍니다. 이 기사에는 마르크스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교황청의 경고가 잘 기록되어져 있읍니다.

이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해방신학에 대한 몇가지 면에 대한 교서」라는 바티칸 교황청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오늘 해방신학이란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해방신학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대해

한국교회가 이 해방신학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앞서 해방신학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페인이 권력을 잡으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한 스페인은 로마카토릭과 함께 진출했는데 이는 라틴 야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해 로마 카토릭이라는 교회를 앞장세워 진출케 한 것입니다. 이후 스페인이 점차 쇠퇴한후 두가지가 상륙했는데 이는 마르크시즘과 프로테스탄티즘 즉 공산주의와 개신교였읍니다. 그러자 로마카토릭교회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어서 150년동안 정치적인 부패와 경제적인 빈곤이 그곳을 휩쓸었읍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이란 독버섯이 생겨나게 된 것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 부패, 경제적 빈곤, 비인간화현상 등이 일어날 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읍니다. 하나는 제2회 바티칸회의이며, 또 하나는 메델린문서입니다.

제2회 바티칸 회의는 1962년 부터 1965년 까지 3년동안에 걸쳐 열렸는데 여기서 뉴카토릭시즘(NewCatholicism)이라는 새로운 카토릭 신학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메델린 문서인데 교황 바오로 6세가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한 직후 열린 제2회 남미 주교회의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남미의 여러 주교들이 함께 모여 정치, 사회 및 경제적인 분석을 한 후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메델린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방신학은 카토릭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난 운동이라 할 수 있읍니다. 이때부터 해방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읍니다.

그후 W.C.C의 1972년 방콕대회와 1975년 나이로비대회를 걸쳐 해방신학을 W.C.C의 신학으로 정식 채택하였읍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한편 해방신학의 신학적 배경의 출발은 본훼퍼(Bonhoeffer)로 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읍니다. 본훼퍼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대항하다 체포되어 1945년 해방되기 직전 총살형으로 세상을 떠난 젊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운 것이 「종교성 없는 기독교」라는 세속화 신학이었읍니다. 이것이 좀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존로빈슨(John Robinson)이란 학자가 신(神) 개념을 주장했읍니다. 그는 초월적인 신관을 부정했는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바로 「신에게 솔직히」(Honest to God)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하비 콕스(Harvey Cox)라는 하바드 대학 교수가 세속도시(Secular City)라는 책을 씀으로 세속화신학을 좀 더 구체화 시켰읍니다.

그후 이러한 세속화 신학의 영향을 받고 나온 유명한 학자가 바로 몰트만 (Jürgen Moltmann)이라는 독일 학자입니다. 그가 내세운 신학은 「희망의 신학 또는 소망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블로흐(Ernst Bloch)라는 신마르크스주의자의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각색해서 「소망의 신학」(Theology of Hope)이라는 책을 펴냈읍니다. 이러한 몰트만의 「희망신학」은 조금 더 발전해서 1967년경에는 소위 매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정치신학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져 버렸읍니다. 이 정치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자유, 해방, 구원이라는 모든 개념들을 정치적인 범주에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곧 정치적인 자유라고 역설했읍니다. 이 정치신학에서는 노동자의 압제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공동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

치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해방신학자들 입니다.

2. 왜 해방신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해방신학은 지금부터 약 20년전 1965년에 시작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 해방신학으로 불려지는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는 해방이란 용어가 종속된다고 하는 종속의 개념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종속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방이란 말이 구원이란 말과 오랜동안 같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해방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을 「해방신학」(Theology of Liberation)이라 이름을 불렀읍니다. 그런데 이 해방신학의 주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방향의 가지들을 갖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인종적인 해방운동을 주장하는 「흑인신학」이 있읍니다. 이 흑인신학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해 반대해서 나타난 신학입니다. 또 「여성해방신학」이란 것이 있읍니다. 이는 여성들이 1차세계대전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되자 사회의 임금이나 그 밖의 성 차별을 실감한 후이에 대해 반대하여서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면서 나온 신학입니다. 또 한가지 경제적인 해방을 주장하는 「도시산업선교회」운동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강하게 일어났던 현상인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일명 「도산」이라고도 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업이 도산(倒産)되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쉽게 말하면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해방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면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민중신학」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읍니다.

3. 해방신학의 특징

해방신학의 특징은 크게 네가지를 들수 있읍니다.

첫째, 교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교회의 기능을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과 다른 하나는 예언자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는 기능인 반면 예언자적인 기능은 잘못에 대해 책망하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예언자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방신학은 투쟁의 신학이란 점입니다.

브라질의 아하스만은 이런 말을 했읍니다. "해방신학의 근본주제는 투쟁의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을 전제로 하고있다는데 있읍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악을 그들의 투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투쟁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있읍니다.

세째, 해방신학의 특징은 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폭력을 제1의 폭력(first violation)과 제2의 폭력(second violation)으로 나누고 있읍니다. 제1의 폭력은 정부등 억압하는 측에서의 폭력을 말하고 제2의 폭력은 억압을 받는 자의 폭력을 말하는데 제1의 폭력은 나쁘지만 제2의 폭력은 옳은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데모방지를 위한 경찰의 동원과 그들의 폭력은 잘못이지만 경찰에 대항하기 위한 학생들의 폭력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식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국가에 검(劍)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외적인, 내적인 악을 제거하는 수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 검을 절대적인 권력을 뜻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권력은 조건적이지만 국가 이외에 폭력을 사용한 권리가 없는 사실입니다.

네째, 해방신학은 네오 마르크시즘(Neo-Marsism)을 해석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들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도 기독교와 네오 마르크시즘 사이에는 정반대의 분석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차이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독교신앙은 창조자 하나님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반면 마르크시즘은 물질의 운동을 영원한 것으로 봅니다.

(2) 기독교신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보나 마르크시즘은 인간을 진화된 고등

동물로 보고 있읍니다

(3)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 자신의 죄라고 하고 있지만 마르크시즘은 그것이 인간의 환경이라고 봅니다.

(4) 기독교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마르크시즘에서는 혁명적인 재건을 말합니다.

(5) 기독교는 그 해결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로 보는데 마르크시즘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이라고 말합니다.

(6) 기독교신앙은 해결의 능력을 성경에서 찾지만 마르크시즘에서는 혁명적인 권력에서 찾고 있읍니다.

(7) 기독교신앙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르크시즘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8) 기독교신앙은 결국 천국·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르크시즘은 인간은 영원히 멸절되며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네오 마르크시즘을 어떤 해석적인 도구로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공산주의자들의 의식화운동을 돕는 것이며,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 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결과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읍니다.

4. 해방신학의 기초

그렇다면 이러한 해방신학은 그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있읍니까? 이 신학은 전혀 성경을 기초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그 기초를 성경에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출애굽사건과 아모스와 같은 사회비판이 강한 예언서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출애굽사건을 정치적인 해방의 역사로 보면서 하나님은 해방자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신약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4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4장 17절 부터 19절 까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도시산업선교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귀절을 정치구속자 석방으로 말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는 귀절은 민중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말하며 끝으로 눌린자를 자유케 하고자하는 귀절은 민주주의 회복운동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귀절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는 메시야에 관한 이사야서의 인용인데 메시야는 바로 복음전파자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자를 고치시는 치유자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메시야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본문 어디를 보아도 무슨 도시산업선교니 민주회복이니 정치구속자 석방이라는 그런 뜻은 없는 것입니다.

5.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신학에 대해 비판을 하겠읍니다.

첫째, 해방신학은 성경의 근본주제를 해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의 근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번째 설교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나라였고 마지막 설교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대로 하나님나라였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성경의 근본주제는 해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해방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죄로 부터의 해방, 죽음으로 부터의 해방, 율법으로 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둘째, 신학이 세상의 모든 정치나 경제, 사회등을 다 취급하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타영역에 대한 침범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서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정치가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거나 종교가 정치에 대하여 어떤 형태든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저들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 복음도 전파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 신자 개개인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또 정당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원하는 여론을 환기시킴으로 교회가 참여해야 되지만 교회가 정치운동이나 이런 것에 앞장 설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째, 해방신학은 성경에서 시작하지 않고 남미의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남미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종속이론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남미에는 그 이론이 들어 맞고 있지만 한국 대만 싱가폴 등은 예외적인 나라로 인정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은 해방신학자들이 곧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방신학이 공산주의가 아니듯이 해방신학자들 자체가 공산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로 몰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마르크시주의를 수단으로 이용하려 함으로 한국의 공산화를 노리고 있는 북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위험한 것입니다.

6. 해방신학에 대한 대안

이제 결론적으로 해방신학에 대한 대안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 나라의 부(富)의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부의 분배에 있어서 평등하게 하지를 못했읍니다. 무역주도형으로 경제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부를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하지 못했읍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해방신학 같은 독버섯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가지 부조리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간 교회는 사회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읍니다. 바로 그 속에서 남미의 해방신학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위에 발을 붙이고 있읍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은 사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계주의적이고 경건주의 위주로 나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 신앙중심으로 나가면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억눌린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사랑을 전달한다면 해방신학같은 독버섯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 기도문 □

부끄러움 없는 일꾼 삼아주소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 : 15)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인간적으로 불미하고 부족한 것 뿐인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구속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로의 반열에 세워 주시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만입을 가지고도 어찌 그 사랑에 감사를 다 드릴 수 있사오리까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지극하신 사랑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또한 우리가 몸 바쳐 봉사할 교회앞에 찬양을 올리고 당회 위에 감사 드립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멧세지는 바로 우리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지침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움 없는 일꾼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되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4대 장로 장립 1주년을 맞이하여)

송 환창 장로

특집②

자유주의 신학과 W.C.C. 에큐메니칼 운동

본문 : 갈 1 : 6 - 8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김 차 생
(장로·기획조정실위원)

다음 글은
지난 10월21일
청년부 초청 특별집회에서 강의된 내용이다.
김차생장로는
"자유주의 신학과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란 제목의 강의에서
"우리의
성경적인 모든 신앙유산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쌓아 얻어진 것이니
이를 잘 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 내용은 강의내용중 중요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주)

W.C.C.는 신학사상의 좌경화 및 혼합주의와 용공주의적 활동자행

문명의 덕택으로 교통수단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여짐에 따라 이와 병행해서 지금 우리 평신도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각종 기독교 단체나 연합체들이 조직이 되고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영향을 받아 교파가 분리되고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식적으로 각종 기독교 단체들의 배경을 알고 그 신학적 배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제 개괄적으로나마 자유주의 신학의 기원과 세계적인 종교단체인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독교가 19세기 말에 이르자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소위 고등비평이라는 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운동은 독일에서 일어나서 영국으로 퍼졌고 미국까지 확대되었다. 이 자유주의신학은 즉 인간은 이성을 믿고 종교에 대하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나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권운동이니 사회개혁이니 하는 것들만 치중한다. 성경을 평가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않고 인간의 작품으로서 가장 위대한 책으로 알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주의신앙은 성경에 대하여는 초자연적 기사와 계시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본질이 인간의 본질을 포함했기 때문에 절대자로 부르기 어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동정녀탄생, 속죄, 부활, 재림, 일반 이적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도덕이 높은 인물로만 알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세에 대하여는 지상천국설을 주장한다.

이 그릇된 신앙은 예수가 동정녀 몸에서나 누구에게서 낳건 인류의 구주가 되면 그만이지 비과학적인 교리를 주장함으로써 현대 사람들의 구원에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자유주의신학이다.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냉냉하고 잠자고 있을때 이 자유주의신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신학교가 고등비평을 가르치고 교회가 무너질때 소수의 경건한 교역자들이 1910년, 1916년, 1923년 각각 그들이 기본교리와 신앙을 확인하는 뜻으로 기독교 5대강령을 재확인하는 모임을 통하여 결의를 하였다.

① 성경과 영감의 교리
②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③ 그리스도의 신성
④ 그리스도의 이적
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같은해 1923년에 1,200여명의 자유주의 목사들이 오번신학교에 모여서 기독교 근본 5대교리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데 서명하였다. 이것을 가리켜 '오번선언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의 미국연합장로교 교단이다. 이 교단안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고등비평사상, 자유주의, 사회행동주의로 나갈때 바른신앙으로 나가는 목사들을 축출하였다.

그리고 1967년도에는 성경의 복음진리를 이해하기 어렵다하여 기독교가 믿어온 성경진리 그대로는 현대사람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다하여 과거 장로교파들이 믿어 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뒤로 물리치고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1967년 신앙고백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백은 그리스도를 정치적 혁명가로 고백하고 모든 교파를 통합하므로 심지어는 카톨릭까지 혼합주의 고백이라고 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동성연애자들에게 목사안수를 줄 것인가 안줄것인가를 의논하다가 연구과제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독본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 교파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사회행동적 사회에 개입해서 가난, 빈곤, 전쟁,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의식화하고있다. 이런 자유주의적 조류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내려 오다가 1948년 화란 암스텔담에서 세계 44개국 단체가 모인것이 W.C.C (World Council of churchs)이다. 한국말로 말하면 세계교회협의회이다.

이 W.C.C 운동이 화란에서 발족된 이후 2차대회를 1952년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었으나 기독교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의 입국을 미국정부가 거절하였기 때문에 2년이 지연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파괴분자들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설득에 의하여 1954년 8월에 미국 일리노이즈 에반스톤에서 열리게 되었다.

3차총회는 1961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4차총회는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제5차 총회는 1975년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제6차 총회는 카나다의 뱅쿠버에서, 1983년에 세계 각국에서 정식대표 930명을 포함하여 보내온 대표를 이방 종교 대표자들 천주교 사절들 및 보도진 820명을 포함 총 3,500명이 참석하였다. 여기에는 소련대표 61명을 위시하여 동구 공산권과 제3세계에서 온 상당수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기독교장로회에서 이대수, 박형규, 김관석, 박상증, 강원용 목사와 통합측에서는 김형태, 김영복, 김소영 목사와 이연옥 권사 등이 참석하였고 대한기독교 감리회에서는 박봉배, 이태영, 김옥나 여사, 김준영 목사를 포함하여 25명이 참석하였다.

W.C.C.의 운동은 세계적인 종교단체이며 모일 때마다 궁극적인 주제는 교회통일 문제였다. 이들은 말하기를 원래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정치, 지리, 언어 및 사회적인 여러사정 때문에 생겨 났으니 이러한 인위적인 교파난립은 교회를 비교회화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하나되는 것은 지상명령임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도 W.C.C.는 일치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17:21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하옵소서." 에베소서 4:4~6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를 오용하고 있다.

W.C.C.가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기독교내의 수많은 교파들을 연합하여 한세계적 단일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교리와 신조, 신앙고백이 각기 상이한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는 원칙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연합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교리는 달리하나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은 얼핏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멋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W.C.C.에 대하여

1. 신학사상의 좌경화

자유주의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믿던지 저렇게 믿던지 어떤 교리를 믿던지 자유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해석, 선택, 교육, 발표 등의 자유를 주장한다. W.C.C.의 신앙적 기초는 정치, 사회, 경제 기타 세속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교회가 가지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도외시하고 있다. 혁명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사신신학 등

물론 W.C.C. 안에 복음적인 신학을 가진 교파나 교인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비교도 안될 정도로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자유주의적이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문을 넓게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2. 단일교회를 목표로 혼합주의

당초 에큐메니칼 운동은 모든 교회와 종교를 합병하여 단일 초교파 형성에 두었는데 이 운동의 초창기 부터 1955년 6월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우궁전에서 불교, 유교, 바하이교, 모하멧교, 유대교, 이스람교, 힌두교, 회회교, 기독교가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세계의 희망이라 하여 기독교의 대동 단결을 부르짖고 신앙의 축제 종교 연합을 시도한 것이다. 이 모임은 유엔 창설 10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개최 되었던 것인데 평화를 위한 기도회였다.

단상에는 여러 다른 종교의 대표자들이 있었으며 사회는 당시 W.C.C.의 국제분과 위원장이었던 놀르박사가 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교독문 낭독에 있어서 참석한 각종 종교의 신앙문을 발췌 교독하고 서로 손을 잡고 각각 자기들의 잡신에게 염불이나 기도를 하였다.

또 한가지 예로서는 1966년 12월 미국 마이아미에서 모였던 N.C.C.총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200여명 참석하였는데 총대중 33%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신앙고백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앙을 36%가 부인했고, 말세의 실재성을 31%가 부인했다. 1968년 스웨덴 웁살라 총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타 종교에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을 가리켜 처음에는 '다른 신앙들'이라고 하나가 그 용어가 이제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75년 케냐의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로마 교황청이 16명을 파견하고 불교, 힌두교, 모슬렘교, 유대교 등에서도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W.C.C.의 궁극적 목적은 이방 종교들과 혼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종교들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1983년 7월 카나다에서 W.C.C. 대회가 모였을때 기독교가 아닌 여러 다른 종교로 하나님께로 가는 또 다른 길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3. 용공주의적 활동

W.C.C.는 공산주의국가에서 온 대표들을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공공연하게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제1회 W.C.C.대회때 당시 미국 국무

장관이었던 덜레스씨가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연설을 한 후에 이어서 정반대 되는 입장에서 교회는 공산주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고 하였다.

제 2 회 대회때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5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체코에서 온 로마카는 공산당원으로 공산주의 평화운동의 공로 훈장을 받았고 구라파에서 온 제일가는 신교 공산주의 대변자다.

이는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악마의 화신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인간을 기아와 고통에서 구출하고 착취와 불평 중에서 구출하며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인간을 도와 주고 싶어한다고 역설한다. 항가리의 피터라는 사람도 공산주의 정치자금을 받는 자이며 공산주의 골수분자다. 역시 항가리의 페루도 공산주의 앞잡이인데 당시 W.C.C. 중앙위원회에 피선되어 공산주의 대변자로 활약했다.

제 3 회 대회때도 소련에서 16인의 대표가 와서 한층 더 공산주의 선전을 한것이다.

이들은 말하기를 서방문명은 멸망상태에 있으며 공산주의는 기독교 정통으로 부터 자라난 본질적인 운동이며 결국 모든 국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다. 옥스남 소련 대표는 위장수염을 달았다가 차를 탈때 떨어져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

혹은 말하기를 유엔도 공산주의 국가 대표들을 받는데 W.C.C는 종교적 유엔이니 공산주의 대표를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한다.

1969년 W.C.C. 중앙위원회는 그들 기구내에 인종차별주의 철폐를 위한 투쟁계획을 수립하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했는데 공식명칭이 "인종차별 반대 투쟁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기타 지역에 어디에서나 싸우고 있는 맑스주의자들의 게릴라 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을 모금하는데 착수하였다.

19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총회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맑스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릴라 운동의 기본사상을 공적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가리켜 '자유주의적 사회복음'이라고 한다.

1977년 W.C.C.총무요 맑스주의자인 필립포터 박사는 선언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이 월남을 쟁취한것은 '월남인민들의 승리'라고 하였으며 이 승리는 지금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전 인민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라고 하였다.

1978년 W.C.C는 아프리카에 있는 테러분자와 맑스주의 게릴라 조직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공급해 주었는데 이 게릴라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소련으로 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쿠바 공산국가의 군대에 의해서 게릴라를 훈련을 시키는데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전세계가 다 알고 있다. 이와같은 게릴라들의 활동으로 공공연한 포악한 행동이 뒤따라 발생하였다.

짐바베가 영도하는 애국전선으로 알려진 테러집단은 로디지아에서 수천명의 선량한 백성들을 학살하고 35명의 현지 선교사들을 학살하였다. 이 학살 사건의 계기로 그때까지 W.C.C. 회원이었던 아일랜드 장로교회, 오스트리아 장로교회, 구세군이 항의와 분노를 표시한 후 탈퇴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W.C.C. 중앙위원회는 1979년 자마이카에서 회합을 갖고 인종차별주의 투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재확인하고 그와같은 투쟁계획을 보다 확장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0년 5 월 W.C.C의 산하 단체 중 하나인 세계선교 분과위원회가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에서 모였는데 주기도의 한구절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였다.

이 회합에서 어떻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해서 상당한 토의가 있었다.

실제로 W.C.C. 지도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궐기하여 인종주의자와 자본가들과 같은 탄압자들에게 대항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즉 해방신학이다. 한편 파키스탄 대표가 아프가니스탄에 침입한 소련군을 규탄하자는 동의를 제청했을 때 그 동의는 여지없이 묵살 당하고 말았다.

4. W.C.C.의 최근동향

쿠바, 로데지아, 월남, 볼리비아, 아프카니스탄, 한국, 대만, 중공, 니카라과, 엘살바르도 이와같은 나라에 음으로 양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W.C.C. 산하에 있는 301교파의 지교회들은 모금할 때마다 이 헌금은 미국 폭격기에 의해서 파괴된 월남교회의 복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유세계가 사용하는 무력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도록 선입관념을 주입시키는데 놀라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5. 한국교회와 W.C.C.운동

한국장로교회는 암스텔담에서 1차총회가 모였을때 김관식 목사를 파견하여 가입하고 2차 총회 때는 김형정, 명신홍, 유호준 목사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1953년에는 기독교장로회가 2차총회 때 가입신청을 내고 3차총회 때는 정식으로 가입했다. 1968년에는 W.C.C. 중앙위원회 강원용 목사가 선출되어 사실상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1956년 9월 승동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0회 총회가 열렸을 때 총대 100여명이 W.C.C. 탈퇴안을 제출하였다. 회의는 그 건의서를 낭독만하고 시간문제와 중대성에 감안하여 기각조치를 하고 말았다.

총회 폐회 이후 N.C.C. 총무인 유호준 목사는 W.C.C.를 탈퇴할 수 없다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반대로 조동진 목사는 W.C.C.를 탈퇴해야 한다는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W.C.C.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그 위원장에는 한경직 목사였다. 한경직 목사는 총회에 보고 하기를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은 두가지의 사상적 조류가 있는데 ① 전 교회를 합동하여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는 이와 ② 교회간의 친선과 사업적인 병합을 목표로 하는 이가 있다.

본 위원회는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참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서로가 맞서오다 대전중앙교회에서 싸우다가 정회를 한 후 서로 각파끼리 서울로 와서 W.C.C. 찬성측은 종로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반대파는 승동교회에서 열렸다.

한국장로교회가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열된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당시 전국교회는 난투극이 벌어지고 교회도 분열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할 의무와 신앙 노선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8:4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신자들은 소돔 고모라에서 반드시 떠나야 할때가 온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은 앞으로 한국교회는 지성인들에게 냉대를 받을 것임으로 교회를 세속화 시켜서 사회가 교회를 알 수 있게 하자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것임으로 교회가 세속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① 성경과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기초를 두는 것이다. 에베소 2: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스스로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토대로 바로 서는 것이다. 이 원리가 사도들이 교훈한 신앙노선이다.

②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한다. 고후 2: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신명기12:32에 내가 너희에게명하는 것을 지켜 가감하지 말지니라.

③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의견을 수립할 뿐만 아니고 그 바른 의견을 파수하기를힘써야 한다. 히브리서 12:4절에 우리가 피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을 말씀하셨다. 신앙을 바로 지키려면은 핍박을 받아왔다. 또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 한국초대교회도 그러했다.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유산은 수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쌓아 얻어진 것이니 이를 잘 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은 원죄교리와 일반은혜의 교리를 함께 가르친다. 교회의 제일차적인 임무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써 하나님 아래서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를 가르친다. 왜냐하면 세상은 개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 6:13절에 "그 중에 십분의 일이 남을찌라도 이것이 삼키운바 될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로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보수교회는 믿음의 조상들로 부터 고귀한 신앙과 성경적인 믿음을 물려 받았으니 웬 은혜며 큰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를 진리의 등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은혜의 시온소로써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더 다같이 노력하자.

찬송가해설과 감상

"환난과 핍박 중에도"

-383장-

조 인 원
(제 3부 성가대 지휘자)

이 찬송은 신앙 고백이 담긴 시적 요소와 곡조로 표현하는 음악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찬송은 성서적 신앙에 바탕을 둔 온전한 내용과 음악의 선율적 화성적 내용의 조화이어야 한다.

좋은 찬송이 갖추어야할 또 중요한 점은 가사의 내용과 곡의 느낌이 일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사 자체, 곡 자체 만으로는 나무랄데 없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가사의 느낌과 곡의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좋은 찬송이 될 수 없다. 성경 말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가로치신 말씀과 같이 두 개의 요소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는 시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 각 자체에서도 훌륭하고 두 요소의 느낌이 꼭 일치 되는 찬송이라 볼 수 있다.

이 찬송을 더욱 은혜스럽게 부르기 위하여 몇가지 언급하여 본다.

첫째로 이 찬송은 3박자의 곡이므로 강약약의 리듬을 지켜서 첫박자의 음에 액센트를 주어서 노래해야 한다.

둘째로 4마디가 한 구절로 되어 있으므로 4마디 씩을 한 숨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세째로 이 곡의 내용이 신앙의 적극적 표현이므로 음 하나 하나에 가벼운 액센트를 주고 끊어서 노래하여야 한다.

네째로 조금 빠른 속도로 불러져야 한다. 느리게 부르면 적극적인 성도의 자세의 느낌이 없어진다.

이 찬송의 곡조의 구성은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까지 8마디이고 둘째 부분은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까지 8마디이고 세째 부분은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의 8마디로 세도막 형식인데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곡조가 거의 같게 되어져 있고 세째 부분이 다르게 되어져 있다. 따라서 노래 부를때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비슷한 느낌으로 부르고 세째 부분은 좀더 크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이 찬송에 어울리는 음색은 입 속을 크게 열고 음폭이 넓은 목소리가 좋고 가사의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에 어울리는 음색이 생겨날 수 있다.

찬송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찬송의 가사를 지은 사람의 신앙적 환경을 알아 본다든가 곡을 작곡한 사람의 작곡 동기를 알아 본다든가 하는 것들도 찬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와 곡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가사 내용이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사의 신앙적 의미를 잘 파악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음악적 요소들이다. 즉 몇 박자의 곡인가? 곡조와 말이 끊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전체가 몇부분으로 구성 되어져 있고 부분과의 느낌의 차이는 어떠한가? 등이 찬송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음악적 요소들이라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찬송의 두가지 요소 즉 시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를 따로 따로 떼어서 이해하고 그리고 두 요소를 합쳐서 같은 느낌으로 느낄 때 올바르게 부르는 찬송이 될 것이다.

□ 충현칼럼 □

"우리의 신앙노선"

김 차생 장로

오늘 우리는 이데오르기(사상)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들의 신앙과 개혁자들로 부터 물려받아 내려오고 있는 고귀한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상실할 위치에 처해 있으리만큼 온갖 무서운 세속적 이데오르기가 교회안까지 침투하여 특히 젊은 청년들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교회도 이런문제에 대처하기 보다는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이와같은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깨어서 허리를 동이고 세상의 온갖 악령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도를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 교리와 제도에 있어서 칼빈선생이 수립한 신학의 체계와 요한 낙스선생이 창안한 제도 위에 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칼빈선생이 주장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고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칼빈과 낙스등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개혁교회 교인들 중에서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것을 그 생명으로 삼고있다. 다시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는데서 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도 정지한다.

요즘 교회안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에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성령의 은사와 그 초자연적 역사를 우리도 누구 못지않게 믿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 죄인이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처럼 고귀하고 값진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신유의 은사가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새사람이 되는 것만큼 값지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안에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성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교회안에 밀려 닥쳐오고 있는 세속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세속주의는 우리들의 신앙의 긴장상태를 해이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상이다. 교회의 질적인 성장은 도외시하고 보이는 외적성장만을 강조한다면 일종의 사치풍조와 세속화의 성창이 아닐수 없다고 본다.

현대교회는 좀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질적인 성장과 철두철미한 신앙사상으로 천하고 가난한 이웃과 우리 겨레에게 진지한 자세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때 교회는 교회로써의 민족의 심장부로써 교회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요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해방신학과 같은 혼합주의적 신막스주의사상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진정 한국교회는 순수하게 민족과 국가에 선구자의 역활을 오늘 처해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민족의 진로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면서까지 봉사할 수 있는 참 지도자가 교회안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민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회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도

월	일 / 기관	교회행사	당회	제직회	기획조정실	구역권찰회	예배위원회	성가위원회	전도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1 제직헌신의달	6~12	공동의회, 신년예배(1/1)	공동의회	정기제직회	행사기획조정, 월간충현발행		신년예배 전체철야기도회			송구영신예배(12/31~1/4)
	13~19	월간충현발행(매월첫주) 단기수련회	헌금작정			노인심방(19~)	새교우환영(매주)			농어촌부흥회(15~18)
	20~26	성 례 식					성 례 식		각지회 및 각주교 전도부장훈련 (22)	동계훈련(21~25)
	27~2	선교주일행사	정기당회(2/1)				제직헌신예배			
2 선교의달	3~9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구역지도자교육 (8)			전도계획책자발간	농어촌부흥회(5~8)
	10~16								상설노방전도인훈련 (14)	전도대파송(10~15)
	17~23	구역축호방문전도(22)				구역축호방문전도 (22)				자립전도(19~21)
	24~2	대심방시작(25)	정기당회(3/1)			대심방시작	구역권찰회헌신예배		학원전도세미나 (28)	3.1절구국성회(3/25~3/2)
3 성전건축의달	3~9	전교인성경공부개강(4)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교역자세미나(3/4~9)			70전도요원훈련(4기)	군종사병훈련3/16
	10~16									농어촌부흥회(12~15)
	17~23	구역축호방문전도(22)				구역축호방문전도 (22)			교도소전도세미나 (21)	자립전도(19~21)
	24~30						남전도회헌신예배			군종사병훈련(26)
	31~6	성례식, 교사체육대회 (5)	정기당회(4/5)				성 례 식			농어촌부흥회(2~5)
4 전도의달	7~13	부활절예배, 부활절음악예배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부활절주일예배 부흥회(8~13)	부활절음악예배		사찰경건훈련
	14~20	교구야외예배시작(15~)				교구야외예배(15~)			직장전도세미나 (16)	자립전도(4~18)
	21~27	배가총동원전도(22~27)				교구전도요원훈련(24~26) 교구총동원전도 (26)			배가총동원전도(22~27)	
	28~4	총동원전도주일 가정의달특별강좌	정기당회(5/3)			총동원전도주일	여전도회헌신예배			
5 가정의달	5~11	경 로 회(11)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70전도요원훈련(5기)	농어촌부흥회(7~10)
	12~18									자립전도(14~16)
	19~25	구역축호방문전도 (24)				구역축호방문전도 (24)			군복음화전도세미나(23)	성령강림대성회(20~23)
	26~1		정기당회(5/31)				교사헌신예배			
6 교구성장의달	2~8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구역지도자교육 (7)			어민및선원전도집회 (4)	농어촌부흥회(4~9)
	9~15									목회자경건내조자훈련(19~21)
	16~22	구역축호방문전도 (2)				구역축호방문전도 (21)			병원전도세미나 (21)	목회내조자경건훈련(19~21)
	23~29	성 례 식			교회성장세미나(27~29)	구역장및권찰추가임명	성 례 식			사법연수생전도(25~29)
	30~6		정기당회(7/5)				성경연구원헌신예배			자립전도(2~4)
7 성도교제의달	7~13	맥추감사주일		정기제직회	32주년기념행사계획 월간충현발행		맥추감사주일			
	14~20								각지회및지주교전도부장훈련	
	21~27									하기훈련(22~26)
	28~3		정기당회(8/2)				성가위원회헌신예배			하기훈련(29~7/2)
8 교육과훈련의달	4~10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여전도회수양회(8~10)	사관생도하기훈련(5~10)
	11~17							성가대수련회(15~19)	남전도회수양회(14~15)	전도대파송(13~18)
	18~24	장학금수여								정로경건훈련, 농어촌부흥회
	25~31		정기당회(8/30)			모범구역, 구역원 표창	북한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자립전도(27~29)
9 교회설립기념의달	1~7	교회설립32주년기념 대심방(2)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대 심 방	교회설립32주년기념예배		70인전도요원훈련(6기)	목회자경건훈련
	8~14	전교인성경공부개강 (9)				교역자세미나(9~14 신임임직자추천				목회내조자경건훈련
	15~21	배가총동원전도(16~21)				교구전도요원훈련 (18~20) 교구총동원전도 (20)			배가총동원전도(16~21)	군종사병교육(17) 농어촌부흥회 (17~20)
	22~28	세계선교대회 총동원전도주일				총동원전도주일	충현세계선교회헌신예배			자립전도(24~26)
	29~5		정기당회(10/2)							
10 봉사의달	6~12			정기제직회	신년사업계획, 월간충현발행	구역지도자야외예배				
	13~19	성 례 식					성 례 식			추계성회(14~19) 농어촌부흥집회(15~18)
	20~26				타교회탐방(21~22)				매스미디어전도세미나	자립전도(22~24)
	27~2		정기당회(11/1)				봉사위원회헌신예배	극동방송성가합창(30)		군종사병교육(29)
11 감사의달	3~9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지회총회 (11월중)	
	10~16									추계성회(11~16)
	17~23	추수감사절예배					추수감사예배		지교회 및 위탁교회 교역자좌담회(21 22)	농어촌부흥집회(19~22)
	24~30	제직임명	정기당회(11/29 제직임명				주일학교헌신예배			자립전도(22~22)
12 결실의달	1~7	권찰임명	권찰임명	정기제직회	월간충현발행	구역분실배정 (6)				
	8~14	교사임명	교사임명							
	15~21	성가대임명	성가대임명							농어촌부흥집회
	22~28	성탄축하예배 교사총회(26)		특별제직회 (27)		권찰회총회 (27)	성탄축하예배 (25)			
	29~4	전교인헌신예배	정기당회(1/3)				전교인헌신예배			송구영신성회

간사업계획

교회	교육위원회 주일학교	교육위원회 성경연구원	봉사위원회	건축위원회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	재단법인 충현동산	수양관관리위원회	사무국	감사위원	인사위원	장학회
		단기수련회	교회탁아부운영		공동의회예산안상정	교회일반비품						
			자원봉사대발족									
	중등부임원수련회 고등부학생헌신수양회				정 기 의 회							
	제직학교(유초소중)			월 례 회								
	전국영아부지도자수련회				정 기 의 회				행 정 감 사			
	제직학교											
	제직학교(직)				정 기 의 회							장학금수여
	제직학교(여) 대학부단기신학강좌			월 례 회								
		주교양성부개강 전교인성경공부개강	전화상담개설 교회상담소개설	3사공사착수	정 기 의 회					회 계 감 사		
3)												
	제직학교종합평가				정 기 회 의		잔디밭조성(20~30)					
	교사체육대회(5)			월 례 회			녹화사업(5~15)					
					정 기 회 의							
	대학부세미나(15~18)											
					정 기 회 의							
	어린이전도집회(2~4) 가정의달특별강좌(8~10)			월 례 회		교회자산재평가						
	어린이주일, 경로회				정 기 회 의							
	어버이주일 대·청전도집회(16~18)								행 정 감 사			
	중고생전도집회(23~25)				정 기 회 의							
	교사단기훈련(30~1)			월 례 회								
	가족수련회(6)				정 기 회 의				헌 혈	회 계 감 사		
							도로공사(10~20)					
					정 기 회 의							
				월 례 회			세초작업(1~15)					
	제직학교(대) 8~12 직장청소년전도집회				정 기 회 의							
	제직학교(청)↓											
	제직학교(지), (청)				정 기 회 의							
	제직학교 (초·소·고·직)			월 례 회								
					정 기 회 의							
	제직학교(장, 영, 중)								행 정 감 사			
	대학부단기신학강좌				정 기 회 의							장학금수여
	제직학교(소)			월 례 회			벌채작업(25~31)					
		신임임직자훈련			정 기 회 의					회 계 감 사		
		전교인성경공부개강 교사양성부개강(9)										
	제직학교종합평가				정 기 회 의							
	대학부세미나	교역자경건훈련										
	대청연합선교회			월 례 회								
	어린이전도집회				정 기 회 의							
	중고생전도집회											
	대·청전도집회				각위원회사업계획 및예산안수합							
	중등부시외산상의밤			월 례 회								
					정 기 회 의							
									행 정 감 사		제 직 인 선	
					정 기 회 의						권 찰 인 선	
				월 례 회							교 사 인 선	
					정 기 회 의					회 계 감 사	성가대원인선	
					예산결산안당회상정							
	직장부전도집회 교사총회				정 기 회 의							
				월 례 회	예산결산특별제직회상정							

친애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과 충현세계선교회원 여러분께, 비할바 없는 우리 주님과 만유의 주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편지 쓴 이후로 상당히 오랜시간이 흘러갔군요.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국 빌립보교회(이종표 목사 시무, 본교회 자매교회)에 편지 쓰는 것도 역시 지체 되었읍니다.

첫째로 이번 여름은 정말 바빴읍니다. 저는 거의 매일 카길 스리나가르와 장스카르 사이를 여행했었읍니다. 그런데다가 매일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위한 매일 매일 행정적인 일까지 겹쳐서 더욱 그랬읍니다.

● 장스카르 지역 성경배포사업 소식 : 8월에 저희들은 장스카르 계곡에서 첫번째 성경배포사업을 실시했읍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읍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일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있었고 8명의인원(전도자들)이 약400킬로그램에 달하는 신약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읍니다. 인도 가정 선교회에서 저희 수속을 위해 짚차를 제공하고 전도자들도 지원해 주었읍니다.

● 사람들은 기쁨으로 티벳어로 된 성경들과 다른 전도자료들을 받았고 우리는 그 지역의 유지들까지 만날 수가 있었읍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인하여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 스리나가르에서의 두개의 대회 소식 : 8월의 마지막 열흘간에 스리나가르에 두개의 대회가 열려서 거기에 참석했읍니다. 하나는 지역 사회 개발 사업에의 기독인들의 참여문제로 열렸고 다른 하나는 인도 성서공회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살고 있는 회교 형제들을 위한 전도문서의 제작과 배포문제로 열렸읍니다.

두 대회가 다 매우 유익하였으며 저는 성서공회주최 대회에서 "잠무와 카쉬밀 지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읍니다.

● 지역사회개발사업 소식 : 저희가 1982년 파르카칙에서 시작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발전되고 확장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금년에 저희는 마을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위한 길을 만들었고,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채소재배를 가르치기 위해 시험적으로 채소 밭을 일구고 그들의 식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몇가지 종류의 채소재배에 성공했읍니다.

저희는 또한 베틀로 실을 짤 소녀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내년에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업으로는 의료활동이 있읍니다. 작은 마을 진료소에서 40내지 60명의 환자를 받고 있는데, 훈련 받은 간호원이나 자격증을 가진 약사가 몹시 필요합니다. 이 시급한 일을 위해 꼭 좀 기도해 주십시요.

작은 마을 도서관과 청년회관도 계속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 퓨리그어 성경번역사업 : 번역사업은 번역자가 본업인 정부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못내기는 하나 천천히 나마 계속되고 있읍니다. 위클립 성경번역선교회의 데이빌 와타씨가 이틀간 함께해 주셔서 다행이었읍니다. 그분이 평가를 위해 퓨리그어 신약성경의 옛날 번역본을 가져갔는데 저희들은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린 번역사업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과 이 일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인도)의 형편 : 저희 나라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인디라 간디 수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잡주의 소요는 인도의 경제와 단결에 정말 큰 손해를 끼쳤읍니다. 회복된 안정과 행정을 놓고 저희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잠무와 카쉬밀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변동이 있고 약간의 소요가 있읍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관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교회가 가끔 복음의 칼날이 무디어져 단순히 다른 제도에 불과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간제도와 비슷한 하나의)

북인도 교회들과 작은 지체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장스카르 성경배포 사진들을 몇장 동봉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으면 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국 빌립보 교회에도 몇장 보냈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권능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984. 10. 10

주안에 충성된 여러분의
엘리야 갤간

□ 단상 □

한 해의 매듭을

직장에서, 거리에서, 곳곳마다 사람과 마주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곤 한다.

'먼 훗날 무엇을 하리라'고 결심을 많이 해 보았다. 내 개인적으론 중년이 되어서 몇편의 글도 써 보리라 생각도 하며 지내왔다. 내 사랑하는 분(하나님)께서 쓸 것들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어떤 일을 내일로 미루고 좀 더 준비해서 몇 년 후에 하겠다는 일들이 곧 닥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바로 지금이 내게 그러한 시간인가보다.

충현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으로서, 짧은 세월이나마 직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바를 부분만 적어 본다면, 첫째로 가장 큰 일은 새성전으로 이사온 것과 둘째로는 교회의 완성된 건물인 교육관과 선교관의 구석구석에서 살아 숨 쉬는 일들이 시작되어 재검토하고 정립한 것들이 가장 큰 일들이라 자인해 본다. 교회가 이사오던 4월말에는 참으로부산하였다. 83년도 11월 부터 철저히 준비해 오고 시행할 일들을 검토해 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구성전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가졌던 의식들이 새성전의 이전에 촛점을 맞춰 바꾸고 개선하는 힘을 기울였던 관계로 어렵지 않게 이사를 해 올 수 있었다.

여러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되고 처리되어가는 교회안을 볼 때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를 이해 못하는 그것 - 사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과 크게 실수한 일도 있는지도 모르지만, 편견과 자기고집이 너무도 많은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본다.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천국일꾼양성과 연결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교인들 스스로 동참해야할 것 같은 마음도 들었었다. 성전건축을 계속 진행하면서 기둥과 터를 닦아 놓고, 계속 해오던 사업들을 위해 일선에서 뛰어 온 일꾼들과, 뒤로 한발자국 물러 서 있던 잠재적인 인재들이 합심하여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도 해 본다. 나 자신도 그렇다 교회에서 교사라는 작은 직분이나마 가지고 있을 때와 개인사정으로 직분을 맡지 않을 때와는 그해를 살아가는 생활태도 - 특히 교회에 대해 - 가 다름을 느껴 보았다.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라면 협조하는 자세를 갖되 그것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느낀다.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나 자신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성해 본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반감을 사지 않을까 빈축을 사지 않을까 조바심부터 하지 말고 좀 더 주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성이 있었다.

좁은 안목이지만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원활히 맺어 주는, 한 역활체로써의 '월간충현'을생각해 보는 것은 노파심일까? 사회의 각 기업체들의 사보(社報)를 보면 홍보파트, 편집진들이 제구실과 사명을 다 할 때, 그것은 기업 전체의 개개인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은밀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셨지만 죽도록 충성하며 선한 사업 등을 펼치며 일한 것과, 그 실적이 바로 전달되고, 그 성과의 장단점이 바로 지적되고 또 개선될 때, 출판사업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큰 소망을 가져 본다. 이 모든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첫째가 기도임을 상고해 본다.

임 정 희

"해외 선교지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 9월16일 서부 자바 치비동지역 아스팩제지공장 건설에 취업중인 한국인 80여명을 위하여 새로운 현장예배를 시작.
- 9월23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고국의 수재민을 위하여 구호금을 모금, 미화 1,000$을 서울 수해대책본부로 송금하였고, 여 선교회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구호대 190대(2kg)를 모아 개척을 후원하고 있는 멘뗑불로 교회를 중심으로 나누어 주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
- 10월 7일 세계공통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자카르타 임마누엘 교회당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어, 화란어, 영어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 4개국어로 합동성찬예배를 드림.

-기도제목-

- 선교사 내외분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따님의 가정을 위해
- 섬기시는 자카르타 한인교회를 위해
- 42개처의 개척교회를 위해
- 자카르타 지역의 회교사원을 중심한 반정부 소요사건의 발생과 폭파사건 등, 사회적인 안전이 동요되고 있는 현실을 위하여

서독 (육호기 선교사)

- 10월12일(금) 오후 6시15분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함.
- 10월22일 비스바덴 한인교회에서 노회가 열림.
- 10월24일 부터 27일까지 피어만산 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함.
-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함부르크교회 부흥성회 인도 예정.

-기도제목-

- 선교사 내외분과 자녀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학업을 위해
- 비스바덴, 뷔츠브룩, 하나우의 세 한인교회를 위해
- 함브르크교회의 부흥성회 인도를 위해

애굽 (이준교 선교사)

- 9월9일 하다이야 알 콥나교회 주일 낮 예배 참석, 설교하고 성찬예식을 집례.
- 9월20일 헬완교회 담임 이브라힘 목사 방문, 고아원을 위한 의류 90점, 신발 10켤레 전달.
- 9월20일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주최 카이로 '84대회 목사 수양회에 참석.
- 9월23일 카이로 교외에 있는 바라지 복음주의 교회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여 설교함. 교회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를 방문, 어린이들을 위한 의류 124점을 전달.

-기도제목-

- 선교사 내외분과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 카이로 한인교회와 포트사이드 가정교회, 대림산업 현장예배를 위해
- 애굽 현지의 교회들과 지원하고 있는 지교회들을 위해

인도 (엘리야 겔간 선교사)

- 장스카르 지역에 티벳어로 된 전도자료들과 티벳어로 된 성경을 배포함
- 스리나가에서 지역사회개발 사업에의 기독교인들의 참여문제로 열였던 대회에 참석하였다.
- 1982년 파르카칙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확장되어감.
- 퓨리그어 성경번역 사업 하나님의 은혜중 계속 진행.

-기도제목-

- 퓨리그어 성경번역 사업을 위해
- 인도의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

-기도제목-

-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을 위해
- 선교사업에 많은 결실이 있기를
- 교회의 증축을 위해

칠레 (유재일 선교사)

- 10월14일에 거행할 성례전을 위하여 9월16일 세례, 개종문답에 참여할 대상자 9명에게 교리공부를 시작함.
- 한인교회 새성전 건축현황은 지하 콘크리트를 완성하고 본당 골조공사를 시작함.

-기도제목-

- 선교사와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벨기에 (김성완 선교사)

- 주일예배, 성경공부등 은혜중 진행.
- 9월16일 박주석 집사 장립예배를 거행.

-기도제목-

- 선교사 내외분과 자녀들과 건강과 학업을 위해
- 브르셀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
- 더욱 더 넓은 성전을 위해

일본 (유병세 선교사)

- 9월2일 투신자살 하려다 구조받은 일본인 여류작가 사사께(36세)씨가 응급소생후 동역자 마기선교사와 교회 자매들의 전도와 권면으로 3일만에 회개 주님을 영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감.
- 9월23일 십승지역에서 개최된 메노나이트 수양회에 참석

-기도제목

- 선교사 내외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섬기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라성충현교회 (정상우목사)

- 9월13일부터 16일까지 김창인 목사를 모시고 부흥성회를 은혜중 마침.
- 9월23일 공동의회에서 라성충현교회 당회조직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홍명국 장로, 최충근 장로, 김규상 장로, 이남영 장로를 선출.
- 9월30일 신동아 집사와 김성주 집사를 안수집사로 선출.
- 지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설립 2주년 기념식과함께 공로 및 시무장로 취임식을 거행하였음.

  공로장로 : 지동방 정래현
  시무장로 : 홍명국 최충근
  김상규 김광철
  김의철

털사충현교회 (강성진목사)

- 9월28일부터 30일까지 김창인 목사를 모시고 부흥성회를 열고 많은 은혜를 받음.
- 김창인 목사를 모시고 교회 성전건축할 대지를 시찰함.
- 수해를 당한 동포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정성껏 모아 수해민 헌금을 바침.

-기도제목-

- 강성진 목사와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 성전대지 추가 매입을 위하여

홍콩충현교회 (오치용목사)

- 9월2일 첫주일부터 오치용목사께서 설교 및 새벽기도회 등 정상집무를 시작케 되었으며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만열 목사에게 감사 드림.
- 9월중 각 부서 및 주교 임직자와 구역권찰을 임명하였으며 연말까지 3차에 걸친 훈련을 실시할 계획
- 9월16일 낮 예배시 공동의회를 열어 4/4분기(9월~12월), 사업예산안을 가결.
- 중국인 선교교회인 차전교회 및 중국인 신학교를 방문하고, 노인학교 개교식에 참석 축사
- 홍콩을 연구하는 리서치 그룹을 학생중심으로 시작하면서 홍콩에 대한 제반자료를 분석코저 함.

-기도제목-

- 오치용 목사 가정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 홍콩충현교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금년 4/4분기에놓여 지도록
- 홍콩사회의 장래 및 교민들의 장래를 위해
- 홍콩충현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 한화선교협회를 위해

뉴욕충현교회

- 9월30일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충현교회 창립예배를 드림.
- 10월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김창인 목사를 모시고 연인원 260여명(3일간)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충현교회 창립감사 부흥성회를 가졌으며, 3일간의 헌금 총액을 서울 충현교회의 건축헌금으로 바침.
- 매주 화, 목, 금 3일간 한 가정씩 원로 목사인 손계웅 목사님

을 모시고 대심방을 실시.

• 뉴욕 충현교회 주소
The Reformed Church On The Hill. (C/O The Korean Choong-Hyeon Presbyterian Church of Greater New York) Lexington Ave. 12th Street Cresskill. N. J 07626 U. S. A

본부소식

• 9월11일 총재 김창인 목사께서 미주 선교지 순방차 출국, 라성 충현교회에서 장로 및 안수집사 투표와 부흥집회를 인도하시고 씨애틀집회, 털사 및 새로 설립예배를 드린 뉴욕 충현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시고 선교현지 시찰을 마치신 후 10월18일 6시에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하심.

• 9월27일(목) 본 선교회 부 교역자로 수고하시는 김성주 강도사께서 남문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심.

• 9월27일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들의 활동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사진 전시회를 시작하여 제1편으로 서독 선교활동보고 및 사진자료전을 본당 입구에 전시하였고 10월21일 부터 제2편 벨지움 및 영국편을 전시함

• 9월30일(주일) 3부 예배후선교 월례회 모임을 본당에서 가졌으며, 저녁예배시에는 선교헌신예배로 드림

• 10월5일 일시 귀국하신 홍콩 이만열선교사께서 본 선교회방문 선교에 관해 담화를 나누심

• 10월10일 부터 14일까지 이스라엘 문화원 및 기독교 100주년 성화대전 운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1회 성화대전 출품작등을 선교관 3층 당회실 및 본당 동편광장 벽판에 전시함.

• 10월17일(수) 저녁예배시 미국 갈보리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척 스미스 목사 설교.

• 10월22일 오·엠·에프(O·M·F) 한국 및 본담당 퍼니호프 목사, 본 선교회를 방문하여 일본에 있는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와의 연락등 선교에 관하여 협의하고 본교회 둘러보심.

• 10월25일 본교회 협동선교사이신 테리파이 목사 지도로 교역자를 위한 영어성경공부를 시작함.

• 10월28일 본 선교회 총재이신 김창인 목사가 일본에서 실시되는 아시아 복음선교대회 참가 및 업무지도차 출국하여 12일 귀국

• 동 10월18일 아프리카 갱비아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이재환선교사가 본 선교회를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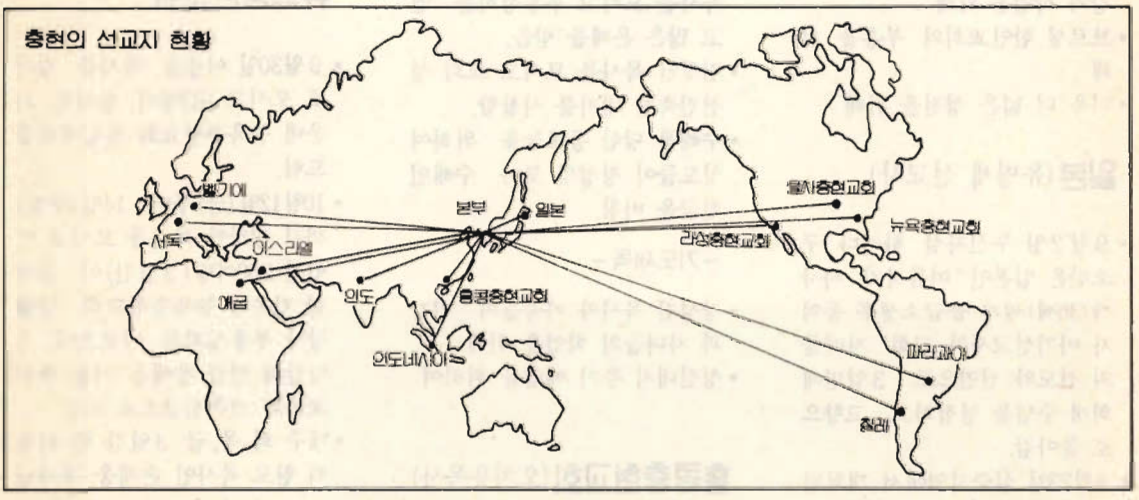
• 10월28일 서독 베를린 주재 구효남 선교사가 본 선교를 방문하여 인사와 함께 문서자료 지원등 업무 협조를 요청

• 10월29일 두란노서원에서 위클립 성경번역선교회 소개 및 협조지원을 위한 선교실무자 간담회에 본 선교회 지도 유국남 목사 참석, 칼빈 렌취 박사의 특강과 참석 실무자들 사이의 친교의 시간도 가짐

• 10월31일 김재창 선교사께서시무하시는 파라과이 아순시온교회 이지영 집사가 본 선교회를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업무협의

• 11월1일 본 선교회 실행위원회 간사 김인석 집사가 약3개월 예정으로 미국 업무여행차 출국. 라성충현교회 및 뉴욕지교회에 보낼 '월간충현' 지를전달함.

• 11월2일 홍콩충현교회 김정순 집사가 홍콩에 보낼 오치용 목사의 모든 짐의 발송을 마무리하고 홍콩에 보낼 '월간충현' 지를 갖고 출국.



1985년 각위원회 임원명단

당 회

당 회 장/김창인
당 회 서 기/조현명
당회부서기/이태규
송환창

제 직 회

회 장/김창인
서 기/손경수
부 서 기/한송규
이 욱
황영일
회 계/박철훈
구 제 부 장/김원선
봉 사 부 장/이희원
예 전 부 장/신현상
미 화 부 장/박옥식

기획조정실

실 장/최석주
부 실 장/이응선
위원교역자/정관호
위 원/김차생
박승준
김광신
손경수
황의만

구역권찰회

회 장/장정일
구역성장연구소장/장정일

서 기 : 박영식
부 서 기/양종섭

1교구담당/
김창근 임태주
남선우 김영근 김광신
박승준 노광헌

2교구담당/
최봉호 이진희
윤종성 조인제 오정헌
한경일 최무길

3교구담당/
조영길 유순화
김원선 조선근 서동석
오정수 윤명식

4교구담당/
이양우 최순복
박용삼 정운석 이영세
이 훈 최상규

5교구담당/
윤용규 정복인
박철훈 김영개 윤광일
김천채 박인세

6교구담당/
김영구 구명신
오진국 최성현 최대원
하대선 송기홍

7교구담당/
한영철 장영자
정광호 이병학 강은
송환창 강순용

8교구담당/
이세열 현정남
윤종순 문홍구 오태희
김은호 이상현

9교구담당/
안석렬 이두란
엄필성 김방진 손동운
이창호 우기전

10교구담당/
김원남 김경성
최성림 윤인현 마성락
홍중섭 박치민

교구간사

1교구간사/
임무천 김세홍

2교구간사/
김정태 김구형

3교구간사/
김기철 박두영

4교구간사/
이요섭 박인건

5교구간사/
이혜경 정쾌명

6교구간사/
박덕양 김종연

7교구간사/
홍성욱 오인근

8교구간사/
채수경 고제승

9교구간사/
이장하 이실호

10교구간사/
김점석 최윤덕

예배위원회

위 원 장/김원남
위원(교역자)/안석렬
총 무/김은호
성 례 부 장/김은호
예배1·2부장/김원선
예배3·4부장/송기홍
예 배 5 부장/문홍구

성가위원회

위 원 장 / 김창근
총 무 / 김천채
제 1 찬양대장 / 조인제
제 2 찬양대장 / 김천채
제 3 찬양대장 / 홍중섭
제 4 찬양대장 / 노광헌
선교찬양대장 / 이 훈
여성찬양대장 / 정경자

전도위원회

위 원 장 / 정석태
민족복음화연구소
소 장 / 이세열
부 소 장 / 이양우
총 무 / 손동운
서 기 / 강은원
농어촌전도부장 / 김경칠
도 시 전 도 부 장 / 최대원
산 업 전 도 부 장 / 유윤진
군 경 전 도 부 장 / 강은원
전도운영 부장 / 손동운
의 료 전 도 부 장 /
제 1 남전도회장 / 우기전
제 2 남전도회장 / 오태희
제 3 남전도회장 / 김영근
한나여전도회장 / 이옥녀
에스더여전도회장/박영엽

북한선교위원회

위 원 장 / 오진국
위 원(교역자) / 조준상
김오용
유창무
총 무 / 최상규
홍 보 부 장 / 박인세
서 기
농어촌전도부장 / 오정헌
회 계
전 도 훈 련 부 장 / 마성락

충현세계선교회

회 장 / 한경일
위 원(교역자) / 유국남
김성주
부 회 장 / 이옥녀
총 무 / 조선근
서 기 / 최성림
회 계 / 김영근
미주선교국장 / 최성림
아주선교국장 / 강순용
유럽선교국장 / 조선근
중동아프리카
선 교 국 장 / 김영근
공산권선교국장 / 김종구
선교교육훈련국장 / 윤인현
재 정 지 원 국 장 / 신현상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조영길
교육연구소
소 장 / 조영길
부 소 장 / 김장근
연구원 / 윤태곤 김익경 김연이
서 기 / 오태희
회 계 / 최성현
교육및성경연구원담당
/ 김장근
연 구 원 담 당 / 최성현
도 서 실 장 / 강모용
교육위원
목사 / 조영길 장로 / 우기전
한영철 정하우
김창근 최성현
최봉호 엄필성
김영구 남선우
김동렬 박용삼
윤태곤 오태희

주교 1 부장 / 엄필성
영 아 부
지 도 / 정소영
부 장 / 엄필성
부 감 / 김상규 배옥인
유 치 부
지 도 / 정연희
부지도 김정자
부 장 / 정광호
부 감 / 김상덕 이경현

주교 2 부장 / 남선우
유 년 부
지 도 / 김연이
부 장 / 이상현
부 감 / 임무천 명정옥
초 등 부
지 도 / 김성윤
부 장 / 이창호
부 감 / 양종섭 김정자
소 년 부
지 도 / 김동열
부 장 / 남선우
부 감 / 노문환 임옥순

주교 3 부장 / 박용삼
중 등 부
지 도 / 이원길
부 장 / 서동석
부 감 / 임기채 지경애
고 등 부
지 도 / 김익경
부 지 도 / 유희섭
부 장 / 오정헌
부 감 / 김환기 이희수
대 학 부
지 도 / 윤태곤
부 지 도 / 남창우
부 장 / 박용삼
부 감 / 윤성철 안춘진

주교 4 부장 / 우기전
청 년 부
지 도 / 최봉호
부 지 도 / 하영자
부 장 / 오태희
부 감 / 한송규 손명순
중 년 부
지 도 / 김영구
부 장 / 이병학
부 감 / 이 욱 백죽심
장 년 부
지 도 / 김희보
부 지 도 / 김양래

부　　장 / 우기전
부　　감 / 김인관　이신일
　　소망부
지　　도 / 한영철
부 지　도 / 김정순
부　　장 / 박인세
부　　감 / 김영생　김정옥

주교 5 부장 / 정하우
　직장전도교육부
지　　도 / 김오용
부 지　도 / 장혜순
부　　장 / 정운석
부　　감 / 박영식　홍풍작
　새가정부
지　　도 / 윤영탁
부　　장 / 정하우
부　　감 / 최기홍　안인현
　새신자부
지　　도 / 구명신
부 지　도 / 정금숙
부　　장 / 이영세
부　　감 / 김정태　이명자
　세 례 부
지　　도 / 이성근
부 지　도 / 윤용규
부　　장 / 최무길
부　　감 / 황영일　윤재춘

봉사위원회

위　원　장 / 박치민
총　　무 / 오정수
위　　원 /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김경철　박지홍

건축위원회

위　원　장 / 김기정
서　　기 / 윤명식
위　　원 /
윤종순　윤종성　임광식
오진국　노광헌　최무길
김천채　원도화　이현실
이옥녀　최동규　김영은
홍춘식

재정위원회

위　원　장 / 최석주
서　　기 / 이응선
회계(건축) / 하대선
　(일반) / 박철훈
위　　원 /
한경일　김영근　오정수
유순녀　김석윤　이옥녀
김광남　노영숙　김정태
김형선　임기채　박영엽

자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윤종성
위　　원 /
윤광일　김영길　지영석
임봉남　주열호　설관호

재단법인충현동산

위　원　장 / 임광식
위　　원 / 김방진
　　윤종순
감　　사 / 김영개
　　김경철

수양관관리위원회

위　원　장 / 김영개
위　　원 /
김한홀　서일영　윤승현

사 무 국

국　　장 / 이태규
위　　원 / 안익태
　　박주한

감사위원회

위　원　장 / 윤종순
위　　원 /
박관영　송환창　김영개

인사위원회

위　원　장 / 조현명
위　　원 /
장정일　최석주　김기정
윤종성　이응선　김창근
이태규　김원남　조영길
이두란

장 학 회

위　원　장 / 윤명식
위　　원 /
김영삼　박채용　이영세
이원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 : 33)

교회 소식

■ 당회장 동정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9월12일 부터 38일간 LA지교회→시애틀교회→털사교회→필라델피아(영생교회)→볼티모어(벧엘교회) →뉴욕충현교회 그리고 자매교회인 뉴욕 빌립보교회 등에서 집회 및 예배설교를 하시고 지난 10월14일 귀국하셨다.

2차여행은 10월31일 일본에 가셔서 「아세아복음선교대회」를 참석하시고 홍콩으로 가셔서 홍콩충현교회를 돌아 보시고 11월 12일 귀국하셨다.

■ 미주교포인 새성전건축헌금

본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미주지역 충현교회 출신 교인들이 성금을 보내왔다.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미주순회 집회시 기탁된 새성전건축헌금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L. A : 문화옥 집사,이동인집사,네오날드 김, 충현교회 박기련권사

△시카고 : 임명기·최영신, 김세란·임성길, 임현덕장로,박영자, 강신의집사

△털 사 : 김집사

△빌 라 델비아 : 지창욱장로, 송원열집사, 김지모집사,영생교회 정문양집사

△뉴 욕 : 이동규장로,최윤희,신계택장로,임마천·이춘자,충현교회

△볼티모어 : 김성호전도사

■ 목사안수식 및 강도사 인허

지난 10월17일 제26회 수도노회(회현동 성도교회)에서 김장근 강도사(성경연구원)윤태곤 강도사(대학부 지도)가 목사 안수 받았으며, 윤용규 전도사(5교구 담임교역자) 김익경 전도사(유년부 지도) 유창무 전도사(충현기도원 부지도) 장병기 전도사(지교회금현교회)가 각각 강도사인허를 받았다.

또 김오용 전도사는 11월27일 경북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 85년도 각위원회 위원장 선임

본교회 당회는 지난 10월30일 정기당회에서 85년도 수고할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선임했다.

이들은 앞으로 새성전시대에 부합한 사업활동을 의욕적으로 감당해 나가게 되는데 온 교우들의 적극적인 기도 뒷바침이 요청된다.

각위원회별 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당회서기 인사위원장 조현명 장로

△기획조정실장 겸 재정위원장 최석주 장로

△예배위원장 김원남 목사

△성가위원장 김창근 목사

△전도위원장 정석태 장로

△북한선교위원장 오진국 장로

△충현세계선교회 회장 한경일장로

△교육위원장 조영길 목사

△봉사위원장 박치민 장로

△건축위원장 김기정 장로

△자산관리위원장 윤종성 장로

△재단법인 충현동산위원장 임광식 장로

△수양관 관리위원장 김영게 장로

△사무국장 이태규 장로

△감사위원장 윤종순 장로

△장학회 회장 윤명식 장로

■ 85년도 후보임직자교육

성경연구원은 85년 후보 임직자를 위한 특별 교육이 10월11일 부터 11월27일까지 있었다.

동 교육에 앞서 가진 개교예배는 10월11일 오후7시 교육관 14 호실에서 김수성목사 사회로 최석주장로의 기도 장정일목사 설교의 1부 예배와 배순조목사(성일교회)의 "일군의 자세"란 제목의 특강이 있었고, 제3부 김장근목사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 제3차 구역축호방문 전도집회가져

구역권찰회는 지난 11월2일 오전10시 30분 본당에서 제3차 구역축호방문 전도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엔 약 5백 50여명의 구역원들이 참석했는데, 강사는 조기철간사(대학생선교회)가 맡았다.

■ 교사단기수련회 마쳐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16~17일 84년도 교사단기훈련을 실시했다.

"제자삼는 교사가 되자"란 주제로 연인원 3백30여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강사 이승장목사의 「진리」 그리고 「성숙」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 1,2,3남전도회 총회

지난 11월11일(주일) 오후1시 30분 선교관 각회의실에서 충현 남전도회 정기총회가 1,2,3남전도회별로 개최되어, 지난 회기 사업 및 결산보고를 받고 새임원을 선출했다.

각 남전도회별로 선임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남전도회 - 회장 : 우기전장로,
부회장 : 최대원장로,
총무 : 마성락장로,

제2남전도회 - 회장 : 오태희장로,
부회장 : 강은원장로,
총무 : 서동석장로,

제3남전도회 - 회장 : 김영근장로,
부회장 : 오정수장로,
총무 : 김천채장로

▲남전도회 회지 「아카페」발행

남전도회 회지인 아가페 18, 19 연합호(선교 100주년 기념호)가 11월 11일 발간되어 회원들과 기타 여러분들에게 배포되었다.

발행인 정석태장로, 편집인 하대선장로, 편집부장 손경수집사 그 외 여러 편집위원들이 수고했다.

9, 10월호 정정란

p32 좌상단 6행 장학생명단에서 「오태용」 삽입은 잘못이었으므로 바로 잡음.

▲전도위원회 소식

△본부

• 10월29일(월) 소망부 전도대원들을 통해 강남구지역 금융기관 50개소에 월간충현 9,10 월호를 비치하였다.

• 11월 1일(목) 오후 2시 교육관 201호에서 제 3 기 70인 전도요원훈련 종강예배(설교 : 김원남 목사)가 있었다.

• 11월 4일(주일) 저녁예배시 제 3 기 70인 전도요원훈련 수료식이 있었다. 이날 양숙란권사 외 66명이 수료하였다.

• 제1,2,3기 연합 70인 전도요원들은 11월 5일(월) 과천 주공 아파트 단지를 집중축호전도를 실시했다.

• 10월27일(토) 본교회를 탐방온 모범군인 55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 11월22일(목)부터 23일(금) 1박 2일 동안 농어촌 지교회, 위탁교회 교역자초청세미나가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다. 교역자 23명과 지원부서인 남녀전도회 임원과 전도위원회 위원등 40 명이 참석하였다.

△남전도회

• 제 3 남전도회(회장 : 김영근 장로)는 9월23일(주일)지교회인 대전리교회(경기도 연천군, 문종복 목사 시무)를 방문하였다. 탁구대 1대를 기증했으며 영화도 상영해 주었다.

△여전도회

• 한나 여전도회 연합회(회장:이옥녀 권사)는 9월16일 본교회 지교회인 재현교회(경기도 연천군, 허상은 목사 시무, 한나 6 지회 회장 : 이신일 권사 지원)를 방문하였다.

• 한나 2 지회(회장 : 김상순 권사)는 9월21일(금) 인천소년원을 전도방문하여 탁상시계 11개를 기증하였다.

• 한나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 이옥녀 권사)는 본교회 지교회인 부현교회(강원도 인제군 최상석 목사 시무, 한나 9 지회 회장 : 최란수 권사 지원)를방문하였다.

• 한나 1 지회(회장 : 백죽심 권사)와 대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아도교회 어린이들이 대학부 초청으로 상경(10월11일~13일) 전도위원회실을 방문했다. 한나 1 지회, 한나, 에스더 연합회의 협조가 매우 컸다.

• 에스더여전도회 연합총회가11월11일(주일) 선교관 402호에서 있었다. 선출된 임원은 회장에는 박영엽 집사, 총무는 이명자 집사이다.

• 에스더 7 지회(회장:원길자 집사)는 11월 4일(주일)지원하고 있는 고대병원(원목 송춘명 전도사)에서 전도, 봉사를 실시했으며 타월을 위문품으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 에스더 2 지회(회장 : 조혜순 집사)는 11월14일(수) 지원하고 있는 경찰병원(원목 이긍하 목사)에서 전도했으며 떡, 과일을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 토막소식

• 고등부(지도 : 안석렬 목사)는 제 8 회 선교음악회를 10월 6일(토) 본당 예배실에서 1부는 말씀과 찬양으로 2부는 새로나온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함께 초청환영파티를 열었다.

• 중등부(지도 : 이원길 목사) 제 12회 시와 찬양의 밤을 11월 3일(토)에 가졌다. 1부는 예배, 2부에는 시와 찬양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결심의 시간도 가졌다.

• 직장전도교육부(지도 : 김오용 강도사) 11월17일(토) 제 2 회 시와 찬양의 밤을 가져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1부 예배 및 2부 찬양, 3부 사랑의 축제와 식사시간 그리고 '감사와 결단의 밤'의 시간을 가졌다.

• 북한선교원은 북한선교 사단법인 인가 기념세미나를 12월17일~19일 3일간에 걸쳐 가진다. 예배 설교자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이며 강사와 강의제목은 신성종 목사의 「해방신학 비판」 전호진 교수의 「민중신학 비판」 조준상 목사의 「북한선교원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강인덕 박사의 「북한에도 종교는 있는가」로 장소는 선교관 2층 북한선교회의실이다.

북한선교원 차량선교 및 지방집회 일정

강사	일자	교회
조준상 목사	11월6~9일	충남 홍성중앙교회 권의수목사 시무
	11월20~23일	전북 군산정운교회 최해일목사 시무
	12월4일8일	경북 청송진보교회 김동철목사 시무
김오용 강도사	11월6~9일	경북 포항여도교회(나환자 정착촌)
	11월20~23일	경북 청송교도소 및 문경교회 오영일목사 시무
	12월4~7일	경기도 여주 지내교회
	12월19~22일	강원도 태백시 화전교회(탄광촌)
유창무 강도사	11월13~16일	경기도 파주 동원교회
	11월27~30	경기도 파주 상지교회
	12월11~14일	충남 서천 화양교회

■ 교구·지역 재조정

기획조정실에서는 교회의 강남 이전에 따른 교인들의 거주지 이동 현상으로 인해 현 교구 및 지역간에 세대수 불균형이 초래되자 이를 재조정하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1교구 1지역인 논현동, 학동의 146세대가 2교구 2지역 관할로 옮겨졌으며 7교구 4·5지역인 종로구 일대의 235세대가 5교구 4·5지역으로 옮겨졌다. 또한 7교구는 10교구의 4·5 지역 일부인 신당동, 황학동 214세대를 관할하게 되어 10교구는 신당동, 황학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5개지역으로 분할하게 되었다. 이번 교구·지역 재조정은 앞으로의 지역적인 인구증감을 고려하였으므로 각 교구간에 균형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교구목회실 운영시작

지난 10월 정기당회 가결로 구역권찰회의 교구목회실이 마련되어 앞으로 각교구 사무처리 및 성도들의 신앙상담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위치는 교109호실에 구역권찰회 사무실과 1, 2교구 및 3, 4교구가, 교103호실에 5, 6교구가, 교104호에 7, 8교구가, 교105호실에 9, 10교구가 각 배치되었다.

■ 추수감사절

교회는 11월18일(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 특별히 오후7:00 저녁예배는 사회에 윤성철 집사, 기도 순서에는 박찬섭 집사, 설교자 신성종 목사의 「은혜와감사」(골2 : 6~7)라는 제목의 설교 후 유치부 학생들의 무용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순서를 가졌다.

각 종 통 계

1984. 10. 21 기준

구분		남	여	계
예배	주일낮 1부	280	530	810
	주일낮 2부	670	1,300	1,970
	주일낮 3부	540	1,000	1,540
	주일낮 4부	470	850	1,320
	주일낮 소계	1,960	3,680	5,640
	주일저녁	260	440	700
	삼일자녁	170	320	490
주일학교	영아부	240	230	470
	유치부	169	180	349
	유년부	184	187	371
	초등부	172	188	360
	소년부	213	207	420
	중등부	230	206	436
	고등부	115	119	234
	대학부	57	66	123
	청년부	58	93	151
	중년부	20	53	73
	장년부	46	259	305
	소망부	48	148	196
	직장전도교육부	30	63	93
	새가정부	25	44	69
	장년재신자부	38	109	147
	세례부	25	51	76
	합계	4,060	6,649	10,706

신급별교인현황			
종 세대수			5,280
교인 총수		남	4,849
		여	6,537
		계	11,386
세례 입교		남	2,479
		여	3,787
		계	6,266
유아 세례		남	573
		여	465
		계	1,038
학습 교인		남	343
		여	505
		계	748
원입 교인		남	1,195
		여	1,511
		계	2,706

9·10월의 교우

● 새교우

1 교구

역삼	5	김수복	역삼	5	이효성
삼성	5	권윤행	삼성	5	권혜연
역삼	6	박숙자	도곡	1	김진성
역삼	2	송석환	도곡	1	송문영
역삼	7	이소현	역삼	4	안병면
논현	6	신춘란	논현	13	이수현
역삼	9	홍정숙	역삼	9	권 무
역삼	9	정연숙	역삼	5	유영희
역삼	5	맹선재	삼성	4	윤복란
삼성	6	김형심	개포1-1		이 앙
역삼	5	조문수	청담	3	김명제
역삼	2	박우엽	역삼	6	서기석
도선	1	박문구	역삼	9	김양민
논현	11	신현종	개포1-1		김혜정
삼성	2	박순옥	은마	3	김옥진
도곡	1	김두환	진달래		이철주
대치	3	최차순	양재	2	최영주
경복		오현란	도곡	3	정경희
삼성	2	허정숙	역삼	2	김정숙
개포1-1		이덕영	역삼	6	남인숙
동선		이창배	역삼	9	최승희
논현	11	이영애	논현	11	조옥순
역삼	8	김은경	영동	1	홍종란
역삼	5	조병규	역삼	4	이주승
역삼	6	나순애	역삼	4	임신자
진달래		송낙현	영동	5	김명현
청실	1	신성백	청담	4	박윤수
영동	5	엄균형			

2 교구

잠원	3	이희숙	압구정	7	문용자
서초	9	김혜양	반포	18	왕경희
압구정	6	최인자	성남	6	김숙희
신사	5	고남분	잠원	2	김희찬
반포		김원범	서초	14	유금순
염곡	1	이라미	신사	2	박성호
반포	18	이강인			

3 교구

호계		조재환	사당	4	김옥대
봉천	3	김종구	봉천	5	손종원
하일		고양배	봉천	6	이양신
상도	1	곽병순	사당	3	박병옥
석수		김복희	신림	5	유재붕
신림	7	박숙형			

4 교구

대림		김종운	구로	1	김경순
목동		김상준	화곡		장재현
신길		박귀례	등촌		박정란
등촌	1	방창섭			

5 교구

불광	1	홍선영	역제		송현숙
신공덕	5	오영미	홍은	1	장기영
북가좌		장진순	역촌	5	이명심
대조		이용호	남가좌	1	정은순
갈현		남인영			

6 교구

정능1-1		정학신	정능	3	최영창
미아	8	정경수	쌍문	2	정우진
수유1-1		박복순	정능	2	김종완

7 교구

면목	6	이혜자	구리	2	김순덕
전농	1	박용기	제기	2	김우순
중화	1	곽옥순	장신	2	고정숙
중화	2	윤미정	면목	11	박한규
제기	2	박제순	숭인		박은미
미아	7	이일화	면목	9	김영옥
장안	7	장기영	장안	1	김기중
전농		조연희	망우	1	임옥자

8 교구

가락	4	백인숙	가락	4	김용래
진주	2	양성근	방이		김치헌
가락	2	최명수	잠4-3		정영희
암사	3	김정순	잠1-4		박명호
가락	3	조원일	잠1-2		박정인
삼전		송순호	삼전		김복숙
잠4-1		임정경	삼익	1	이화언
강동	1	최은아			

9 교구

옥수	4	채명애	자양	4	임경분
도선	1	박문구	화양	2	박영덕
구의	2	정영애	하왕	2	최순옥
홍익	1	임선옥	자양	3	한춘실
마장	2	이묘순	마장	2	김광옥
자양	3	김순자	마장	2	권영양
마장	1	이향숙	자양	2	박종구
구의	1	박계숙	자양	5	임광서
금호	4	김활호	역삼		최원희
금호	3	김채춘	성수	1	안송란
행당		홍명성	마장	3	윤헌규
홍익	2	이남순	마장	3	이관규
화양	1	박준열			

10교구

신당6-1		마봉열	신당1-2		지복순
남창		홍영숙	신당1-5		김석순
광희1-3		이교오	신당6-1		김성숙
진당		박철용	필동	2	이진령
필동	3	신양희	신당2-4		이재현
신당4-1		이은구	광희2-2		김종산
주교	1	김성화	신당3-1		김강진

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 : 24-25)

●결 혼

- 마인순양(마숙전집사 박감연권찰 딸) 8월20일
- 김경일군(김만극씨 장영옥권사 아들)과 엄 희양 8월21일
- 김건우군(김무일씨 최경복권사 아들)과 문인순양 8월25일
- 권우용군과 김은경양 9월15일
- 김일종군과 신인자양(송귀남권사딸 1부 성가대원)
- 천인범군(천성룡씨 최금성권사 아들)과 이명화양
- 소재목군과 김기영양(최완집사 딸 북정구역) 9월22일
- 공창훈군(이영숙권사 아들)과 정운숙양 9월29일
- 김교동군(종암구역 이규성씨 아들)과 여선애양 10월1일
- 이용석군과 김순련양(2부 찬양대원 공향조권사 딸) 10월1일
- 이선일권사(이석원씨 이상덕권사 아들)과 손효숙양 10월3일
- 정수일군(정형성씨 김신도권사 아들)과 김경자양 10월6일
- 김종덕군과 김광순양(황광명집사 딸) 10월6일
- 정제순군과 홍정옥양(홍순규씨 정만실집사 딸) 10월6일
- 홍순상군(홍종락씨 이석정씨 아들)과 조순옥양 10월10일
- 구경희군(조기형권사 아들)과 안인옥양 10월20일
- 안진섭군(안영윤씨 최영숙집사 아들)과 장덕순양 10월23일
- 고일상군(고제중씨 박은숙권사 아들)과 서성연양 10월27일
- 이강인군(서초)과 허숙(종암구역) 10월27일
- 이영석군과 한경숙양(한관수씨 김정자집사 딸) 10월27일
- 표성배군과 김은미양(제2찬양대원) 10월27일
- 임영득군(역삼6)과 박현미양 10월27일
- 박황주군과 류진숙양(이분전권사 손녀) 10월27일
- 송연옥양(신월 송동일씨 동생)10월27일
- 박진우군과 김선미양(김광삼집사 허윤실권사 딸) 10월29일

●별 세

- 김도진씨(남가좌 양창용권사 부군) 7월26일
- 이기춘씨(역천 이순근권사 부군) 8월7일
- 천해봉씨(홍인1) 8월10일
- 노치각씨(안암 한춘실집사 부군) 8월17일
- 한제훈씨(인현 송금주씨 부군) 8월21일
- 최승호씨(반포) 8월27일
- 이호경집사(장명숙집사 부군) 8월28일
- 장혜경씨(조순호권사 아들) 9월1일
- 한호성씨(개포 박종옥씨 부인) 9월15일
- 김택종씨(홍인2) 10월9일
- 박봉식씨(동원1 이인순집사 부군)10월10일
- 송권섭씨(송기홍장로 숙부) 10월16일
- 최영철씨(서초11) 10월17일
- 박금덕권사(압구정 조용문집사 모친) 10월19일
- 방문대군(신월) 10월22일
- 김금랑권사(부암) 10월22일
- 안응만씨(장2-1) 10월23일
- 최세영목사(양재1 박명엽집사 부군) 10월23일
- 전봉성목사 10월25일
- 김용자집사(대치3) 10월25일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교우는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분이나, 교회생활을 해 온 분 중에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자 원하시는 분에게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매주일 2부예배후 11시 30분(1부, 3부예배후 1시 30분에 교육관 212호에서 6개월 기간으로 공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분을 위해서는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으니 적절한 시간을 택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장년새신자부)

12월의 행사

□ 당 회
2일 / 제직임명
9일 / 교사·성가대임명
16일 / 권찰임명
30일 / 정기당회

□ 제직회
2일 / 제직회 총회

□ 기획조정실
9일 / 월간충현 발행

□ 구역권찰회
28일 / 구역권찰회 총회

□ 전도위원회
9일 / 한나여전도회 총회
16일 / 에스더여전도회 집회

□ 북한선교위원회
17~19일 / 북한선교 사단법인인가 기념세미나
31일 / 송구영신 축복성회

□ 예배위원회
25일 / 성탄절

□ 교육위원회(성경연구원)
2일 / 교사양성부 수료식
17일 / 교육위원회 총회
23일 / 교육연구원 회의
23일 / 주교각부 수료식
27일 / 교사총회

편집후기

성경은 성도를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 칭하면서, 본향을 향한 의지를 강조한 것은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갈곳 있는 나그네란 점에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세상을 여관으로 여긴 이후로는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한 헌신으로 살았으며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감사를 알고 표현하며 사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사는 행복한 신자의 수가 많다면 이 세상은 행복으로 꽉 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감사를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시작해야 하겠다.

표지의 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기독성도의
기본 자세이지만
올해도 육의 양식을
풍요롭게 주신 주님께
영의 양식도
풍족하게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84년 한 해 동안에
내리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지를 실었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편 집 위 원

장 정 일　조 현 명
김 수 성　이 형 수

월간 충현

1984년11·12월호

제12권 8 호 (통권124호)
1972년 4 월 30일 창간
1984년 12월 5일 인쇄
1984년 12월 9일 발행
발 행 인 / 김 창 인
편 집 인 / 최 석 주
주 간 / 이 성 근
홍보출판부장 / 김 광 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665 - 1
전화 / 562 - 4181 ~ 5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활동' 이모저모

• 털사충현교회 성전건축 부지 앞에서 당회장 김창인목사와 강성진목사

• 인도선교지에서 전도하시는 엘리아겔간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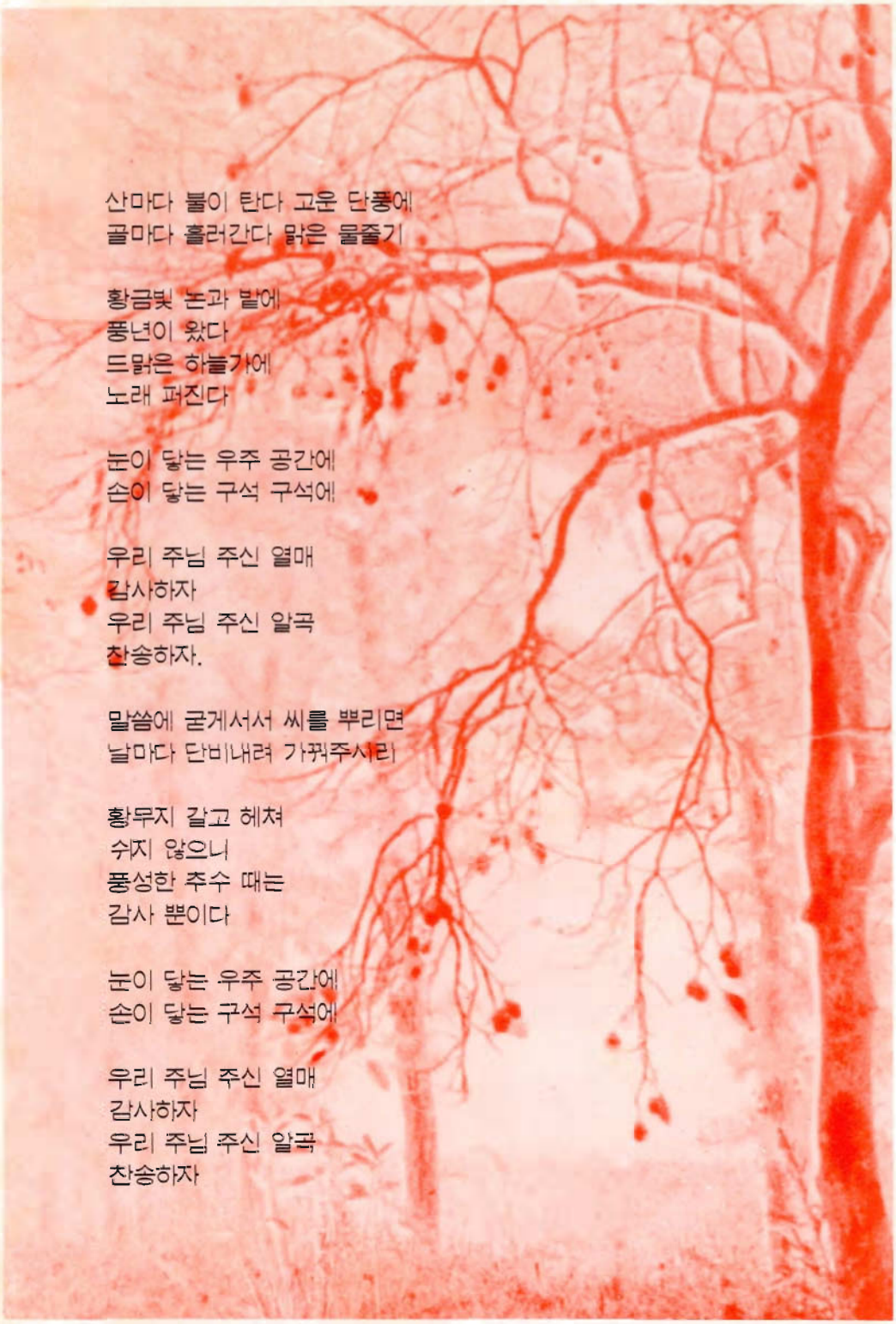
• 길본서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는 이윤호 권사

• 남전도회 총회모습 (11월11일 제1, 2, 3남전도회의 총회가일 제히 실시되었다)

• 교육위원회 주최 교사단기수련회 모습 (11. 17)

• 고등부가 주최한 제 8 회 선교음악회 (10. 6)

• 84년도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 (10. 7)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 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우리 주님 주신 알곡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니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 뿐이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 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우리 주님 주신 알곡
찬송하자